

■ 평양출신 새터민 김성애씨의 '남북정상회담 2박 3일'

감동이 불면으로... 다시 사무치는 그리움

■ 북녘땅 가족에 대한 사랑 일기에 담아 "새터민들도 편지·화상상봉 허용을"

탈북 10년만인 지난해 5월 광주 시 북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김성애(가명·여·62)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2박3일동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는 자신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서 손을 흔들 때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TV화면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불면과 감동과 희망의 사연들은 오롯이 그의 일기에 담겼다.

◇10월 2일 맑음=아침부터 숨 쉴 때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님 부부가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

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길을 우리 새터민도 언젠가 걸어야 할 것이다. 화면 속 평양거리에는 노 대통령님을 환영하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사랑하든 부모님·형제·자식·친구들이 보이는 듯 해 눈여겨 살피고 감새겨 본다. '한 번만 더 보여주면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려진다. 애가 탄다.

대통령님이 탄 차가 만수대 앞을 지날 때 어린 시절 만수대 동상을 청소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평양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북녘 부모께 부칠 수 없는 편지를 쓰고 있는 김성애씨.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해방탑. 못 건디게 가보고 싶다. ◇10월 3일 맑음=은 밤을 뒤척

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평양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부모·형제·자식들을 두고 온 고향이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다. 광주에 살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고향 얘기로 오랜만에 웃음 꽃을 피우며 갈비탕을 맛있게 먹었다. 잠시나마 행복했다.

◇10월 4일 맑음='보고 싶은 부모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땔 수 없네요. '10·4 남북평화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새터민들도 편지라도 하게 해줬으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광주는 인심 후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사랑합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화의 빛' 점등. 4일 저녁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야제'에서 세계디자인평화선언 상징조형물인 '평화의 빛'이 점등했다. 점등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박지원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화의 빛' 점등

4일 저녁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야제'에서 세계디자인평화선언 상징조형물인 '평화의 빛'이 점등했다. 점등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박지원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걸음마 연습하다 차에 치여 숨져

광주서 한 살배기 여아 양양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양은 당시 아버지(37)가 보는 앞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B사우나 앞길에서 김모(61)씨의 무쏘 승용차가 양모(1)양을 들이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서 한 살배기 여아

아버지 앞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던 한 살배기 여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B사우나 앞길에서 김모(61)씨의 무쏘 승용차가 양모(1)양을 들이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종전회담 광주시"

사나나 구스마오 전 동티모르 대통령 등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 8명 전원은 '남·북 정상의 10·4 평화선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인권상 수상자 모임은 4일 5·18기념재단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북한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을 이룰 계기가 되는 바이다"며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으로 가고자하는 남북한 국민의 노력은 아시아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또 남과 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차 또는 4차

북 수해복구 물품 지원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상임공동대표 조철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해지역의 주택 복구를 위해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시멘트 912t, 강재 112t 등 건축자재 1천24t 등으로 5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앞 광장에서 환송식을 하고 북으로 보내진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웨딩홀 신축 현장 붕괴

4일 오전 10시58분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 'E웨딩홀'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꾸집을 받치고 있던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인부 1명 사망 3명 부상

김모(57·영광군 염산면)씨가 숨지고, 안모(58·광주시 남구 방림동)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 등은 건물 외벽공사를 위해 5m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철골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현주기자 ahj@

'10·4 선언' 광주·전남 각계 반응

"평화·통일의 문 활짝 열었다"

남북 정상의 '10·4 평화선언'이 발표된 4일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들과 시·도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뒀다면 이번 회담은 가시적 성과와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며 "광주시도 앞으로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 부문과 함께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경제협력으로 남북 간의 많은 차이들을 좁히는 노력과 접촉이 이뤄져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임재완 교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본부 김영삼(38) 사무국장은 "사회경제특구의 경우 경제 교류와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 경총, 중기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등 경제단체들도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데 대해 대북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는 후속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기업들에게 경험의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와 북한의 제도나 실상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323) 김종두



다들 권력·선정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연도, 도로, 대터널
KCC광도, 시스텔광도 생산·시공
▶ 010-8252-14-3002 ▶ 010-8252-14-3003
(주)본드나리 KCC·철도, 연도, 도로, 대터널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 010-8252-14-3002 ▶ 010-8252-14-3003

현직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서 물가

○현직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평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는 지난 달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서점 화장실에서 A씨 등 여성 2명을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

○김 경위는 휴대전화 작동소리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광주동부경찰에 달미가 잡혔는데, 김 경위의 휴대폰에는 모 대학 캠퍼스에서 촬영한 여대생 7명의 엉덩이 부분 사진도 함께 담겨져 있었다.

○"을 들어 소속 경찰관의 '도박'과 '음주사고'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경찰은 김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정계할 방침.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보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석,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범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028-0200